

새로운 경제시스템 창출을 위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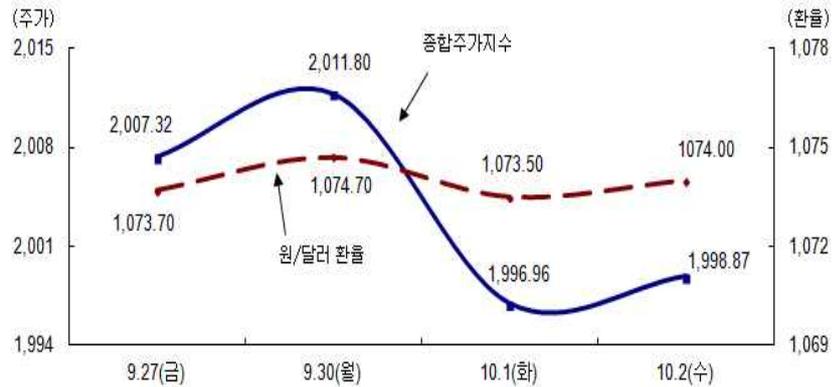
경제주평

Weekly Economic Review

□ 2014년 국내 경제 전망

Better than
the Best!

週間 主要 經濟 指標 (9.27~10.2)



차 례

주요 경제 현안	1
□ 2014년 국내 경제 전망	1
주요 국내외 경제지표	20

□ 본 자료는 기업 경영인들을 위해 작성한 국내외 경제 경영 주요 현안에 대한 분석 자료입니다.
 □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원의 공식의견이 아닌 연구자의 개인 견해를 밝히며, 보고서 인용 시에는 반드시 출처를 명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괄 : 한 상 완 경제연구본부장 (2072-6230, swan@hri.co.kr)
 □ 작성 : 임 희 정 연구위원 외 (2072-6218, limhj9@hri.co.kr)

■ 2013년 경제의 특징

2013년 한국 경제는 1/4분기를 저점으로 회복세로 돌아섰으나 연간으로 잠재성장률 3.8%에 크게 못미치는 2%대 중후반 성장률을 기록할 것임. 물가는 1%대 상승률을 기록할 전망. 따라서 저성장-저물가의 디플레이션갭 상황에 처해 있는 것으로 판단. 내수 측면에서 소비는 가계부채, 전세가 급등 등으로 인하여 증가세가 부진한 모습을 보였음. 건설투자는 정부의 SOC 예산 확대 및 추경 편성 등으로 공공과 민간 부문의 투자 확대. 설비투자는 국내외 경기 회복이 지연되면서 회복세 미약. 외수 측면에서는 세계 경기 회복 지연으로 수출 증가세는 낮게 유지될 전망. 수입 부진이 심화되어 경상수지는 큰 폭의 흑자를 시현할 것으로 예상

■ 2014년 대외 경제 여건

세계 경제는 선진국 주도 경기 회복세

2014년에 미국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점진적인 회복세가 전망됨. 선진국 경제는 미국 경제 중심으로 2%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됨. 신흥개도국은 중국과 인도를 중심으로 2013년과 유사한 수준의 성장세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 세계 경기가 완만하게 회복되면서 세계 교역량도 5%대 중반을 기록할 전망

국제 원자재 가격 하락세

국제 원유 가격은 미국의 수입 수요 감소, 미국 달러화 강세로 인한 수출 가격 인하 등의 요인으로 가격 하락이 예상됨. 기타 원자재 가격 중 금속류 가격은 세계경기 회복으로 완만한 상승세가 전망. 농산물 가격은 국제밀 위주의 생산 증가가 가격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나 기상이변으로 인한 변동성 확대 우려도 상존

유로화와 위안화 절상 기조

유로화는 유로존 경기가 침체를 벗어나며 미약한 절상 추세가 전망됨. 위안화는 중국 국제교역에서 중국 위안화 결제 비중 상승과 중국 경기 회복세 등으로 절상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 반면 엔화는 완화적 통화정책 지속으로 절하 추세가 전망됨

■ 2014년 국내 경제 부문별 전망

경기 개관

경제 성장 : 2014년 경기는 외수 측면에서 회복의 모멘텀이 발생할 전망. 수출 증가가 설비투자 증가로 이어지면서 경기 회복 견인. 2014년 경제성장률은 2013년 2%대에서 3%대 후반으로 상승하여 잠재성장률 수준 달성 전망

내수 부문 : 소비는 가계부채, 전세값 급등, 고령화로 인한 평균소비성향 하락이 소비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지만 실질소득 증가와 교역조건 개선, 기저효과 등으로 증가율 상승. 투자 부문 중 건설투자는 2014년 SOC 예산 축소 등으로 빠르게 회복되기는 어려울 것임. 반면 설비투자는 수출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로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임

외수 부문 : 미국의 경기 회복세, 유로존 경기 부진 탈피 및 중국의 대선진국 수출 증가 등으로 수출 경기 여건은 좋을 것으로 예상됨

내수 부문

민간소비 : 국제원자재 가격 안정으로 인한 교역조건 개선으로 실질구매력 증가, 가계 실질소득의 완만한 증가로 2%대 후반 증가 예상

설비투자 : 국내외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로 설비투자조정압력과 민간부문의 기계수주 회복 등으로 설비투자는 완만한 증가세로 6%대 후반을 기록할 전망

건설투자 : 정부의 SOC 예산 절감 계획으로 공공부문의 건설투자가 감소할 것이나 부동산 대책에 따른 민간 주택건설 부문을 중심으로 건설투자가 증가하여 소폭의 증가세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

대외 거래

2014년 미국의 경기 회복세, 유로존 경기 부진 탈피 및 중국의 대선진국 수출 증가 등으로 수출입 증가율은 완만한 성장이 예상됨. 수출은 대미국 및 대유럽 수출 회복, 중국을 통한 중간재 수출이 확대되면서 연간 8%대 중반을 기록할 전망. 무역수지와 경상수지는 각각 399억 달러, 490억 달러로 흑자는 지속되나 수입 증가로 흑자 폭은 2013년 대비 축소될 전망

고용과 물가

고용 : 2014년 기업투자 및 민간 건설경기가 회복되고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정책에 두는 국정기조가 유지되면서 실업률이 소폭 하락할 전망

물가 : 경기 회복으로 인한 수요측 물가 상승 압력과 명목 임금 인상 등 공급 측 요인으로 2013년 보다 물가 상승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 다만 2014년에 국제 원자재 가격 하향 안정화, 원화 강세 등은 물가 상승폭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

원화 환율

2014년에 원화는 경상수지 흑자 기초, 외국인 투자자금 유입, 양호한 한국 경제 펀더멘탈 등으로 2013년 대비 소폭 절상될 것으로 예상됨

■ 정책 과제

2014년 국내 경제는 3%대 후반의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이다, 잠재성장률의 하락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 이에 더하여 대내외적으로 잠복해 있는 교란 요인이 현실화될 가능성도 상존. 이에 따라

첫째,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한 종합적 대책 마련이 필요

인구 측면에서는 고령화 및 정년퇴직, 여성인력 활용 미흡, 청년실업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 필요. 중산층 복원을 위한 세제·재정·양질의 일자리 측면에서의 다양한 정책 제안 필요. 창조 경제 및 신성장동력 확보 차원에서 제조업 유턴 유인, ICT 융합 촉진, R&D 확대 등 필요. 경제 민주화의 속도 조절 및 행정 규제 완화 등을 통해 기업가 정신 제고

둘째, 소비 여력 회복을 위한 대책 필요

가계부채 연착륙, 부동산 경기 활성화,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중산층의 소비여력 제고 정책 필요

셋째,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 배가

설비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규제 개혁, 경제민주화 속도 조절, 노사정 대타협, 수도권 투자 걸림돌 제거, 투자 관련 세제 지원 확대 등 필요. 건설투자 확대를 위해서는 8.28 대책에서 추진되고 있는 주택시장 정상화, 임대주택 공급 확대, 서민·중산층 주거비 부담 완화 추진. 또한 SOC 투자 확대(정부예산이 부족할 경우 민간 BTO, BTL 방식 활용)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

넷째, 재정건전성 제고 방안 추진

과도한 복지가 재정건전성 훼손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할 필요. 복지 확대는 불가피한 것이나 꼭 필요한 분야와 대상으로 복지를 확대해야 할 것임. 증가하는 복지 수요에 대해 증세, 지하경제 양성화로 대응

다섯째, 대외 교란 요인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미국 양적완화 축소, 일본 아베노믹스 실패 우려, 중국 경착륙 등 글로벌 시장 급랭에 대비. 금융시장 불안을 차단하기 위해 거시건전성 규제 및 국제 자본의 유출입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 환율 및 금리의 급격한 변동에 대응한 체제 구축. 수출 신시장 개척 및 FTA 활용 등을 통한 대외 충격을 최소화. 한편, 해외 시장 여건 악화에 대비하여 지식기반 서비스업의 육성 등을 통해 내수기반을 강화

□ 2014년 국내 경제 전망

I. 2013년 경제의 특징

- (경기) 2013년 국내 경제는 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을 하회하고 물가가 1%대 상승률을 기록하는 등 저성장-저물가의 디플레이션갭 상황에 빠져 있음
 - 2013년 한국 경제는 1/4분기를 저점으로 회복세로 돌아섰으나 연간으로는 국내 잠재 성장률인 3.8%에 크게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
 - 2012년 3/4분기 전년동기대비 3.6%를 기록한 후 2013년 1/4분기 1.5%까지 추세적으로 하락. 2013년 2/4분기에 2.3%로 상승 전환
 - 하지만 올해 성장률은 2%대 중후반 성장률을 기록하여 국내 잠재 성장률인 3.8%를 하회할 것으로 보임
 - 국내 경기 침체 장기화로 소비자물가와 근원물가 상승률이 지속적으로 1%대에 머무는 등 우리 경제의 디플레이션 진입에 대한 우려 증가
 - 소비자물가는 내수 부진에 따른 수요측 인플레이션 압력 저하, 농축수산물과 석유류 가격이 안정되며 2013년 1월~9월 평균 1.2%로 1%대에 머물고 있음
 - 현재 국내 경제의 디플레이션 발생 가능성은 외환위기, 금융위기 등 경제 위기 기간을 제외하고 가장 높은 수준까지 상승¹⁾
- (내수) 건설투자는 공공과 민간 투자 확대로 회복세를 보였으나, 국내외 경기 회복이 지연되며 소비와 설비투자는 회복세가 미약
 - 소비는 가계부채, 전세가 급등 등으로 인하여 증가세가 부진한 양상을 보였음
 - 민간소비 증가율은 가계부채 누증으로 인한 원리금 상환 부담 등으로 2013년 1/4분기 1.5%, 2/4분기 1.8%로 1%대 기록
 - 건설투자는 정부의 SOC 예산 확대 및 추경 편성 등으로 공공과 민간 부문의 투자가 확대
 - 건설투자는 2012년 4/4분기 -4.2%를 기록한 이후 2013년 들어 정부의 추경 편성과 SOC 예산 확대 등으로 1/4분기 2.4%, 2/4분기 7.2%로 회복세

1) “국내 디플레이션 발생 가능성 점검 - 일본형 디플레이션 가능성 차단해야 한다(2013. 8. 9)”, 현대경제연구원

- 설비투자는 국내외 경기 회복이 지연되면서 설비투자 회복세는 미약
 - 국내외 경기 회복 지연과 경기 불안 심리가 지속되면서 설비투자는 2013년 1/4분기와 2/4분기 각각 -11.9%, -4.6%를 나타내며 회복세가 미약
- (외수) 대외거래는 수출에 비해 수입 부진 심화가 두드러져 경상수지는 큰 폭의 흑자가 예상
 - 세계 경기 회복 지연으로 수출 증가세는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국제원자재 가격 안정 및 국내 소비 둔화 등으로 수입은 부진 심화
 - 수출증가율이 2012년 -1.3%를 기록했고, 2013년 1~9월 기간 중 1.3%로 수출 회복세는 여전히 미약한 것으로 판단
 - 수입증가율은 2012년 연간 -0.9%를 기록했고, 국제원자재 가격 안정 및 국내 소비 둔화 등으로 2013년 1~9월 까지 -1.9%로 부진 심화
 - 경상수지는 수출보다 수입 부진세가 심화되면서 큰 폭의 흑자 시현이 예상
 - 경상수지는 1~8월 중 423억달러 흑자를 기록하였고, 수입부진 심화로 올해 사상 처음 600억 달러를 넘어서는 큰 폭의 흑자를 시현할 것으로 예상

<2013년 국내 경제 부문별 실적 추이>

(단위 : %, 억 달러, 천명)

성장률	2011	2012					2013					
		1/4	2/4	3/4	4/4	연간	1/4	2/4	7월	8월	9월	
경제성장률	2.0	2.8	2.3	1.6	1.5	2.0	1.5	2.3	-	-	-	
내수	민간소비	2.4	1.3	1.0	1.7	2.7	1.7	1.5	1.8	-	-	-
	건설투자	-4.7	-0.4	-3.1	-0.3	-4.2	-2.2	2.4	7.2	-	-	-
	설비투자	3.6	8.8	-3.5	-6.9	-5.2	-1.9	-11.9	-4.6	-	-	-
외수	경상수지	261	26	112	146	148	431	100	198	68	57	-
	무역수지	308	12	56	68	97	283	57	143	25	49	37
	수출	5,552	1,348	1,401	1,331	1,398	5,479	1,354	1,412	458	464	447
	증감률	19.0	2.9	-1.7	5.8	0.4	-1.3	0.4	0.8	2.6	7.7	-1.5
	수입	5,244	1,337	1,304	1,257	1,298	5,196	1,297	1,269	433	415	410
증감률	23.3	7.8	-2.9	-6.9	-1.1	-0.9	-3.0	-2.7	3.2	1.0	-3.6	
고용	실업률	3.4	3.8	3.3	3.0	2.8	3.2	3.6	3.1	3.1	3.0	-
취업자증가	415	467	430	506	342	437	257	324	367	432	-	

주 : 무역수지, 수출, 수입은 통관기준임.

II. 2014년 대외 경제 여건

1. 세계경기 : 2014년 세계경제는 선진국 주도 경기 회복세

- (2013년 현황) 선진국과 개도국 경기 모두 미약한 회복세
 - 2013년 선진국 경기는 미국을 제외하고는 장기 침체의 영향이 남아있으며, 신흥개도국은 대외 수요 부족과 국제원자재 가격 하락 등의 요인으로 경기 회복세 미약
 - 미국 : 2013년 미국 경기는 재정지출 자동감축의 영향 감소와 소비 지출 및 부동산 시장 개선으로 경기 바닥을 다지며 1.2% 성장 예상
 - 유럽 및 일본 : 2013년 유로존은 재정위기 여파 잔존으로 -0.6% 성장하고, 일본은 완화적인 통화정책과 민간소비 개선으로 2.0% 성장 예상
 - 신흥개도국 : 세계경기의 미진한 회복세에 따르는 대외 수요 부족과 국제원자재 가격의 약세 등의 요인으로 전년대비 0.1%p 상승한 5.0% 성장 예상
- (2014년 전망) 세계경기는 미국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점진적인 회복세 전망
 - 선진국 경제성장률은 2014년 2.1%로 경기 회복세가 2011년 수준(1.7%)을 넘어서지만 신흥개도국은 5.4%로 회복세는 크지 않을 전망
 - 미국 : 주택 경기 회복과 제조업 경기 개선 등으로 성장률은 2%대 후반을 기록할 전망
 - 일본 및 유럽 : 완화적인 통화정책의 지속(일본)과 구조조정의 효과 및 저효과 등(유럽)으로 1%대의 성장률 전망
 - 신흥개도국 : 미국 양적완화 축소에 따르는 글로벌 자금 유출의 타격과 국제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경기 회복에 차질을 빚을 우려가 있음

< IMF의 세계 각국 경제성장률 전망 >

(단위 : %)

구분	2011	2012	2013년(E)		2014년(E)	
			'13.4월	'13.7월	'13.4월	'13.7월
세계	3.9	3.1	3.3	3.1	4.0	3.8
선진국	1.7	1.2	1.2	1.2	2.2	2.1
미국	1.8	2.2	1.9	1.7	3.0	2.7
일본	-0.6	1.9	1.6	2.0	1.4	1.2
유럽	1.5	-0.6	-0.3	-0.6	1.1	0.9
신흥개도국	6.2	4.9	5.3	5.0	5.7	5.4
ASEAN-5	4.5	6.1	5.9	5.6	5.5	5.7
서남아시아	3.9	4.4	3.1	3.1	3.7	3.7
중남미	4.6	3.0	3.4	3.0	3.9	3.4
아프리카	5.4	4.9	5.6	5.1	6.1	5.9
브릭스						
브라질	2.7	0.9	3.0	2.5	4.0	3.2
러시아	4.3	3.4	3.4	2.5	3.8	3.3
인도	6.3	3.2	5.7	5.6	6.2	5.7
중국	9.3	7.8	8.0	7.8	8.2	7.7

자료 : IMF.

주 : 1) ASEAN-5는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베트남을 의미.

2) 아프리카는 사하라 이남 지역 아프리카를 의미.

2. 세계 교역 : 세계경기 회복에 따르는 국제 교역 증가 예상

- (2013년 현황) 선진국과 신흥개도국 모두 경기 회복세가 미약하여 세계 교역량도 소폭 증가
 - 세계 교역 : 유로존 재정위기 여파의 잔존과 중국의 대외 교역 부진 등의 요인으로 세계 교역량은 3% 초반에 머물 전망
 - 재정위기국의 여전히 높은 국제금리와 사상 최고치를 보이는 실업률 등 유로존의 금융위기 해소와 실물경기 회복은 아직 미약한 상황
 - 중국은 글로벌 수요 부진과 자국의 경제 구조조정 과정 진행 등의 영향으로 수출입이 부진

- (2014년 전망) 2014년에는 선진국 중심의 세계경기 회복으로 세계 교역량 증가 전망
 - 선진국 : 미국 경기의 지속적인 회복과 유럽 경기의 침체 탈피 등의 영향으로 2014년 선진국의 수출과 수입 증가율은 4%대 중반을 기록할 전망
 - 미국은 부동산 경기를 중심으로 경제 회복이 가시화 될 전망이며 유럽 경기도 침체 상태를 벗어나 플러스 증가율을 기록할 전망
 - 신흥개도국 : 세계 및 중국 경기의 회복 등의 요인으로 2014년 신흥개도국의 대외 교역은 증가하여 수출 및 수입증가율은 각각 6% 중반과 7% 중반을 기록할 전망
 - 선진국을 중심으로 하는 세계 경기 회복은 중국의 원자재 수입 수요 증가를 가져와 신흥국 수출 증가에 기여

< 세계 수출입 전망 >

(단위: %)

구분		2011	2012	2013(E)	2014(E)
세계 무역 증가율		6.0	2.5	3.1	5.4
수출	선진국	5.6	2.0	2.4	4.7
	신흥 개도국	6.4	3.6	4.3	6.3
수입	선진국	4.7	1.1	1.4	4.3
	신흥 개도국	8.7	5.0	6.0	7.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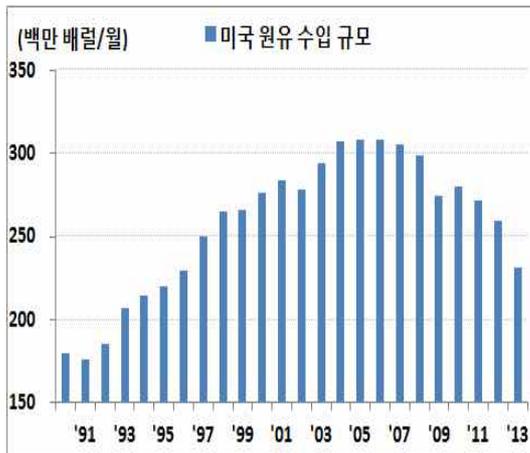
자료 : IMF, *World Economic Outlook*, 2013년 7월.

3. 국제 원자재 : 가격 약세 전망

○ (2013년 현황) 세계경기 회복 지연과 중국의 원자재 수요 감소 등의 수급 여건 개선으로 국제 원자재 가격 약세

- 원유 : 글로벌 경기회복 기대 등으로 연초에는 급상승했으나 미국 원유 수입 감소와 유로존 경기지표 부진 등 수급 여건 개선으로 하락세
 - 올해 6월 현재 기준으로 미국의 2013년 월평균 원유수입 규모는 2억 3,081만 배럴로 1996년의 2억 2,899만 배럴 이래 최저치를 기록
- 기타 원자재 : 중국을 비롯한 세계 경기의 예상보다 부진한 회복으로 수요 부진이 지속된 반면 기존에 증가한 생산량 등 수급 여건 개선으로 원자재 가격은 소폭 하락
 - 2013년 상반기에는 예상보다 부진한 경기 회복세로 금속류 가격은 약세이지만, 하반기에는 세계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세를 보임
 - CRB선물지수²⁾ 역시 2013년 1월 31일 303.99p까지 잠시 상승하였지만 이후 하락하여 2013년 10월 3일 현재 285.55p를 기록

< 미국 원유 수입 추이 >



자료 : 미국 에너지정보청(U.S. EIA).
주 : 2013년은 1월 ~ 6월까지 월평균치.

< 주요 국제원자재 가격 추이(2013) >



자료 : Fnguide.

2) 국제 원자재 및 선물 주식회사인 CRB(Commodity Research Bureau)가 발표하는 19개 원자재(WTI유, 알루미늄, 설탕, 옥수수 등) 선물 가격의 가중 평균치로서 비중은 농산물, 에너지, 금속류의 순임.

- (2014년 전망)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에 따르는 달러화 강세와 국제유동성 축소로 인한 상품자산 선호 약화, 전반적인 수급 여건 개선 등의 영향으로 국제 원자재 가격은 약세 전망
 - 원유 : 미국의 수입 감소 지속에 따르는 국제 수급 여건 개선과 미 달러화 강세에 따르는 수출 가격 인하 등의 요인으로 국제원유 가격 하락 전망
 - 셰일오일 생산 증가를 중심으로 하는 미국내 원유 생산량 증가 추세가 지속되어 원유 수입을 대체함에 따라 국제 원유 수급 여건 개선 전망
 - 미 달러화 가치 상승은 상품시장에서의 투자자본 유출과 달러화로 결제하는 자원 생산국의 원유 수출 가격 인하 요인으로 작용
 - 중동 지역의 정정 불안 등 지정학적 요인 등의 돌발 변수가 국제 원유 가격 급등에 미치는 영향도 상존
 - 기타 원자재 : 세계경기 회복에 따르는 수요 증가와 이전까지의 생산량 증가와 재고량 누적 등의 수급여건 개선 등의 상반된 영향으로 기타 원자재 가격은 차별화 전망
 - 금속류 가격은 세계경기 회복에 따르는 완만한 상승세 전망
 - 농산물 가격은 국제밀 생산 증가 중심의 수급 개선에 따르는 하락세가 전망되지만 기상이변에 따르는 변동성 확대 우려도 상존

< 국제 유가 현황 및 전망 >

(단위 : 달러/배럴)

구분	전망기관	2011	2012	2013			2014		
				상반	하반(E)	연간(E)	상반	하반(E)	연간
두바이	CERA	106.2	109.1	104.5	104.1	104.4	98.8	94.7	96.8
	EIA	111.3	111.7	107.5	108.7	108.1	103.8	100.7	102.3
브렌트	CGES	112.2	112.4	108.4	111.2	109.8	108.2	103.4	105.8
	PIRA	111.3	111.6	107.5	112.1	109.3	109.3	109.3	109.3

자료 : CERA(2013.9.5), EIA(2013.9.10), CGES(2013.9.23), PIRA(2013.9.24).

주 : 1) 2013년 하반기부터 추정치.

2) CERA(미국 캠브리지에너지연구소), EIA(미국 에너지정보청), CGES(세계에너지센터), PIRA(석유산업연구소)

< 국제원자재 가격지수 현황 및 전망 >

(단위 : P, (%))

구분	2011	2013	2013(E)	2014(E)
국제원자재	209.9 (20.7)	190.0 (-9.5)	181.2 (-4.6)	179.1 (-1.2)
농산물	209.0 (22.7)	194.0 (-7.2)	182.5 (-5.9)	179.3 (-1.8)
금속	205.5 (14.4)	174.0 (-15.3)	171.8 (-1.3)	173.1 (0.8)
귀금속	371.9 (36.6)	378.3 (1.7)	337.7 (-10.7)	327.5 (-3.0)

자료 : World Bank(2013.5).

주 : 1) 국제원자재 지수(2005년 = 100)는 원유 미포함.

2) () 안은 전년대비 증감률.

3) 금속에는 철광석, 알루미늄, 구리, 납, 니켈, 주석, 아연 등이 포함됨.

4. 주요국 환율 : 달러 강세 기조 속 변동성 확대

- (2013년 현황) 주요 선진국 통화정책의 차별화에 의한 글로벌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미국 경기개선에 따르는 미 달러화 강세
 - 주요국과의 무역 규모를 감안한 실질실효달러인덱스는 2013년 1월 3일 72.8p에서 9월 27일 현재 75.2p로 상승
 - 미국 연준의장의 양적완화 축소 발언(2013년 5월 22일) 직전인 5월 20일 이후 10월 3일까지 인도 루피화와 인도네시아 루피아화는 각각 11.1% 및 15.4% 절하
- (2014년 전망) 주요 국제투자은행에 따르면, 미 달러화 강세가 두드러지며 유로화, 위안화는 상대적인 강세를 보이고 엔화는 아베노믹스 지속으로 약세 전망
 - 글로벌 달러화 : 미국 경기 회복과 양적완화 축소로 인해 글로벌 달러화 강세 전망
 - 유로화 : 유로존 경기가 침체에서 벗어나며 유로화는 강세 전망
 - 2013년 9월 기준 주요 투자은행의 전망에 따르면 유로화의 평균 환율은 향후 3~12개월 기간 중 유로당 1.26~1.30 달러
 - 엔화 : 일본의 완화적 통화정책 지속으로 약세 지속 전망
 - 2013년 9월 기준 주요 투자은행의 전망에 따르면 엔화의 평균 환율은 2013년 9월 기준으로 향후 3~12개월 기간 중 달러당 103.00~109.69엔 기록
 - 위안화 : 국제 교역에서 중국 위안화 결제 비중 상승과 중국 경기 회복세 등으로 위안화 강세가 지속 전망
 - 주요 투자은행의 위안화 환율 평균 전망치는 2013년 9월 기준으로 향후 3~12개월 기간 중 6.10~6.13위안

< 주요 통화의 대미달러 환율 추이와 전망 >

구분	달러/유로			엔/달러			위안/달러		
	3개월후	6개월후	12개월후	3개월후	6개월후	12개월후	3개월후	6개월후	12개월후
평균	1.30	1.28	1.26	103.00	104.50	109.69	6.13	6.12	6.10
최고	1.38	1.40	1.40	108.00	110.00	120.00	6.20	6.18	6.20
최저	1.20	1.19	1.15	99.00	97.00	94.00	6.08	6.07	6.02

자료 : 국제금융센터(2013.9.30)
 주 : 14개 주요 국제투자은행의 전망치.

Ⅲ. 2014년 국내 경제 부문별 전망

1. 경기 개관 : 완전한 회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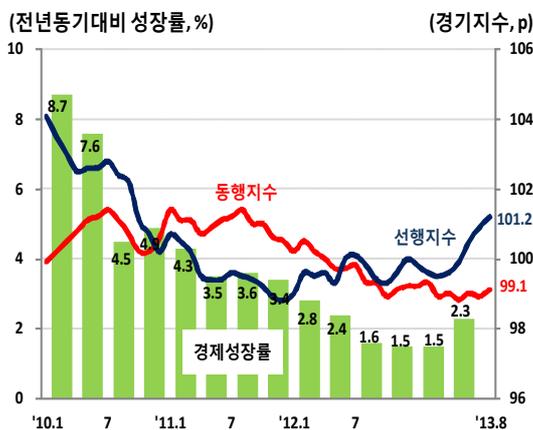
○ (현황) 2013년 국내 경기는 내외수 부진으로 회복 미약

- 한국 경제는 2013년 1/4분기를 저점으로 2013년 2/4분기에 회복세로 전환
· 2013년 2/4분기 성장률은 전기대비 1.1%로 최근 9분기래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
- 선행지수는 상승세이나 출하와 재고 증감률이 하락하여 회복국면 진입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임
· 경기동행지수가 상승세이고 경기선행지수는 기준점 100을 상회하고 있어 향후 경제성장률이 개선될 것임을 예고

○ (전망) 2014년에는 내수 회복이 미약한 상태에서 외수 측면에서 경기 회복의 모멘텀이 올 것으로 전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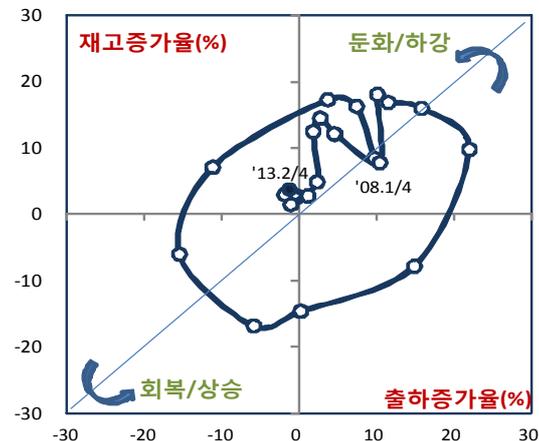
- 2014년 경제성장률은 연간 3.8%로 잠재성장률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
· 내수 부문 중 소비는 가계부채, 전세값 급등, 고령화로 인한 평균소비성향 하락이 소비 제약 요인으로 작용
· 투자 부문 중 건설투자는 2014년 SOC 예산 축소 등으로 빠르게 회복되기는 어려울 것임. 반면 설비투자는 수출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로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임
· 외수 부문은 미국의 경기 회복세, 유로존 경기 부진 탈피 및 중국의 대선진국 수출 증가 등으로 수출 경기 여건은 좋을 것으로 예상됨
- 다만, 외수경기가 빠르게 회복되더라도 실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을 크게 상회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예상됨
· 외수경기가 빠르게 회복되더라도 한국 내수경기의 확산(Spillover)으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 있음. 또한 정부의 부동산대책의 효과가 미진할 우려도 있음

< 국내 경기 지수 추이 >



자료 : 한국은행, 통계청.

< 제조업 생산자 재고 및 출하 지수 추이 >



자료 : 통계청.

2. 소비 : 미약한 회복세

○ (현황) 고용 시장 개선, 자산효과, 물가안정화로 인한 가처분소득 증가 등으로 미약한 증가세를 보임

- 2013년 상반기에 국민 총가처분소득 증가율이 1% 미만인 머물면서 민간소비가 2013년 1/4분기 전년동기대비 1.5%, 2/4분기 1.8% 기록
- 소비자물가는 2013년 1~9월까지 평균 1.2% 상승률 기록
- 가계의 월평균 실질소득 증가율은 2013년 1/4분기 0.3%, 2/4분기 1.1%를 기록하나 여전히 미약한 수준

< 민간소비 관련 변수 추이 >

구 분	2011	2012					2013				
		1/4	2/4	3/4	4/4	연간	1/4	2/4	7월	8월	9월
민간소비 증가율(%)	2.4	1.3 (0.8)	1.0 (0.4)	1.7 (0.7)	2.7 (0.8)	1.7	1.5 (-0.4)	1.8 (0.7)	-	-	-
소매판매 증가율(%)	4.5	2.8 (1.0)	1.4 (0.3)	2.6 (1.2)	2.5 (0.4)	2.3	0.2 (-1.2)	1.1 (0.4)	1.0 (1.2)	2.5 (0.4)	-
실질소득 증가율(%)	1.7	3.8	3.7	4.6	3.6	3.8	0.3	1.3	-	-	-
소비자물가 상승률(%)	4.0	3.0	2.4	1.6	1.7	2.2	1.4	1.1	1.4	1.3	0.8
취업자 증가수(천명)	415	467	430	506	342	437	257	324	367	432	-

자료 : 한국은행, 통계청.

주 : 1) 전년동기대비 증감율, ()안은 전기대비 증감률.

2) 가계신용증가율은 말잔 기준, 연간/분기 소비심리지수는 말월 기준.

○ (전망) 민간소비는 가계부채 누증으로 인한 원리금 상환부담이 증가할 것임. 다만 국제원자재 가격 안정으로 인한 교역조건 개선으로 실질구매력 증가, 가계 실질소득의 완만한 증가로 2%대 후반 증가 예상

- 고용 시장 개선 : 실업률이 하반기에 상반기 대비 개선되어 3%대 초반을 기록하여 가계 가처분소득 증가로 이어질 것임
- 자산 효과 : 4.1 및 8.28 부동산 대책으로 2013년 상반기 이후 가장 어려운 상황을 지나면서 향후 부동산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됨. 이로 인한 자산 효과는 소비 제고 요인으로 작용할 것임
- 소비 심리 : 소비 심리가 개선되어 국내 경제에 대한 낙관적 기대도 소비 증가 요인
- 가계 부채 효과 : 가계부채 누증으로 인한 원리금 상환 부담이 증가하나 금리가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소비에는 제한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임

< 가계신용 및 소비자심리지수 추이 >

구 분	2011	2012					2013				
		1/4	2/4	3/4	4/4	연간	1/4	2/4	7월	8월	9월
가계신용 증가율(%)	8.7	7.1	5.9	5.6	5.2	5.2	5.1	5.5	-	-	-
소비자심리지수(p)	100	102	101	99	99	99	104	105	105	105	102

자료 : 한국은행, 통계청. 주 : 가계신용증가율은 말잔 기준, 연간/분기 소비심리지수는 말월

- 이에 따라 민간소비 증가율은 상반기 2.8%, 하반기 2.6%이고 연간으로는 2.7%를 기록할 전망

< 민간소비 추이 및 전망 >

구분	2011	2012	2013			2014(E)		
			상반	하반(E)	연간(E)	상반	하반	연간
민간소비	2.4	1.7	1.6	2.3	2.0	2.8	2.6	2.7

자료 : 한국은행. 주 : 2013년 하반기부터는 현대경제연구원 전망치임.

3. 설비투자 : 경기 회복 기대 속 완만한 증가세 전환

○ (현황) 2013년 국내외 경기 회복이 지연되면서 설비투자 부진 심화

- 국민계정상 설비투자와 통계청 설비투자지수는 2013년 2/4분기 부진세 지속
 - 설비투자는 2013년 1/4분기와 2/4분기 각각 -11.9%, -4.6%, 설비투자지수는 기계류 투자 부진으로 2013년 1/4분기 -15.4%, 2/4분기 -10.0%를 기록.
 - 다만, 운송장비 부문은 2013년 2/4분기 3.4%, 7월과 8월에 각각 6.0%, 56.4%를 기록하면서 호조를 보여 8월 설비투자지수가 플러스로 전환하는 데 기여

< 설비투자 추이 >

(전년동기대비증감율, %)

구 분	2011	2012					2013			
		1/4	2/4	3/4	4/4	연간	1/4	2/4	7월	8월
설비투자(국민계정)	3.6	8.8	-3.5	-6.9	-5.2	-1.9	-11.9	-4.6	-	-
설비투자지수	4.0	10.7	-2.7	-8.2	-6.9	-2.0	-15.4	-10.0	-8.3	4.6
기계류	2.7	12.8	-2.6	-7.8	-10.3	-2.2	-20.8	-13.2	-11.8	-4.5
운송장비	9.8	2.0	-3.1	-10.1	7.2	-1.1	10.4	3.4	6.0	56.4

자료 : 한국은행, 통계청.

- (전망) 2014년 국내외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로 설비투자조정압력과 민간 부문의 기계수주 회복 등으로 설비투자는 완만한 증가세를 나타낼 전망
 - 설비투자조정압력은 2012년 1/4분기 이후 5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으나, 2013년 8월 플러스로 전환되었고, 향후 경기회복 기대감으로 증가세 지속 전망
 - 국내기계수주는 민간부문이 회복되면서 플러스 증가율을 지속하고 있어 향후 설비투자는 완만한 회복세가 예상됨

< 설비투자 선행지수 및 조정압력 추이 >

(%, %p)

구 분	2011	2012					2013			
		1/4	2/4	3/4	4/4	연간	1/4	2/4	7월	8월
설비투자조정압력	1.1	0.7	-1.3	-3.0	-1.5	-1.4	-2.9	-2.0	-0.7	2.0
국내기계수주	7.6	-1.1	-19.8	-10.4	-21.5	-13.4	-10.9	8.7	5.7	6.4
공공부문	-2.6	126.1	-59.7	86.7	-54.6	-11.0	-47.0	94.2	15.8	-52.0
민간부문	8.8	-8.7	-15.1	-16.0	-15.1	-13.6	-5.6	4.0	3.6	13.7

자료 : 통계청.

- 주 : 1) 설비투자조정압력(%p) = 제조업생산증가율(%) - 제조업생산능력증가율(%)
- 2) 기계수주는 선박제외, 2010년 불변가격 기준.

- 2014년 설비투자는 상반기 9.8%, 하반기 3.9%증가로 연간 6.7%로 전망

< 설비투자 추이 및 전망 >

(전년동기대비, %)

	2011	2012	2013			2014(E)		
			상반	하반(E)	연간(E)	상반	하반	연간
설비투자	3.6	-1.9	-8.2	5.8	-1.5	9.8	3.9	6.7

자료 : 한국은행.

주 : 2013년 하반기부터는 현대경제연구원 전망치임.

4. 건설투자 : 민간부문 중심으로 회복되나 공공부문이 걸림돌

- (현황) 2013년 건설투자는 4.1 주택시장 정상화대책, 8.28 부동산대책, SOC 투자 확대 등으로 건설투자 회복세
 - 2013년 2/4분기 민간 및 공공부문 건설기성이 크게 개선되며 건설투자(국민 계정)도 회복세로 전환
 - 건설기성은 2011년, 2012년 각각 -0.6%, -4.0%로 마이너스 증감률을 지속하다가 2013년 들어 1/4분기와 2/4분기 각각 5.2%, 15.6%로 증가세 전환

< 건설수주액 증감률 추이 >

(단위 : 전년동기대비, %)

구 분	2011	2012					2013			
		1/4	2/4	3/4	4/4	연간	1/4	2/4	7월	8월
건설투자(국민계정)	-4.7	-0.4	-3.1	-0.3	-4.2	-2.2	2.4	7.2	-	-
건설기성	-0.6	-0.9	-7.7	-1.3	-5.1	-4.0	5.2	15.6	11.6	16.8
공공부문	-0.1	0.9	-5.1	-2.4	-8.7	-4.4	-5.4	5.4	12.5	10.8
민간부문	-2.2	-2.1	-7.5	-0.1	-1.0	-2.7	14.5	24.4	14.6	22.7
건설수주(경상)	6.1	33.3	-0.7	-13.6	-33.1	-8.9	-41.2	-28.8	-14.6	-11.5
공공부문	-2.0	34.3	-11.2	-18.4	-17.3	-8.8	-22.6	-5.3	-37.8	11.6
민간부문	12.3	40.0	4.9	-9.6	-43.1	-7.5	-46.9	-35.7	0.4	-19.2
건축허가면적	9.9	8.7	1.2	-7.3	-8.0	-0.5	-12.4	-14.6	-1.8	-

자료 : 한국은행, 통계청.

- (전망) 부동산 대책에 따른 민간 주택건설부문을 중심으로 건설투자가 증가할 것이나, 정부의 SOC 예산 절감 계획으로 공공부문의 건설투자가 감소하면서 2014년 건설투자 증가율은 소폭 증가에 그칠 전망
 - 부동산대책에 따른 민간부문 개선 : 정부가 부동산시장 정상화 대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함에 따라, 민간 주택건설부문을 중심으로 건설투자가 증가할 전망
 - SOC 예산 절감에 따른 공공부문 부진 : 정부는 세출절감 계획에 따라, 2014년부터 보금자리주택 및 SOC 예산을 중심으로 재정지출을 감소할 계획으로 공공부문 투자가 축소될 전망
 - 정부의 SOC 예산은 2013년 23조 9,000억원, 2014년 23조원, 2015년 22조 7,000억원으로 재원을 축소해 나갈 계획

< 건설투자 전망 >

(단위 : 전년동기대비, %)

	2011	2012	2013			2014(E)		
			상반	하반(E)	연간(E)	상반	하반	연간
건설투자	-4.7	-2.2	5.2	2.5	3.7	1.7	3.3	2.5

자료 : 한국은행.

주 : 2013년 하반기부터는 현대경제연구원 전망치.

5. 대외 거래 : 선진국 및 중국 수출 경기 회복으로 완만한 수출 성장

- (현황) 글로벌 경기 침체 및 신흥국의 경기 둔화가 지속되면서 2013년 수출입 둔화세는 지속되고 있으나, 경상수지는 사상 최고치 달성
 - 수출은 글로벌 경제위기로 2012년 -1.3%를 기록했으며, 2013년 세계 경기회복 지연으로 미약한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음
 - 다만, 상반기 수입 부진이 지속되면서 경상수지는 2/4분기에 298억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호조세 지속

< 수출입 실적 및 무역, 경상수지 추이 >

(단위 : 억 달러, %)

구분	2011	2012					2013				
		1/4	2/4	3/4	4/4	연간	1/4	2/4	7월	8월	9월
경상수지	261	26	112	146	148	431	100	198	68	57	-
무역수지	308	12	56	68	97	283	57	143	25	49	37
수출 (증감률)	5,552 (19.0)	1,348 (2.9)	1,401 (-1.7)	1,331 (5.8)	1,398 (0.4)	5,479 (-1.3)	1,354 (0.4)	1,412 (0.8)	458 (2.6)	464 (7.7)	447 (-1.5)
수입 (증감률)	5,244 (23.3)	1,337 (7.8)	1,304 (-2.9)	1,257 (-6.9)	1,298 (-1.1)	5,196 (-0.9)	1,297 (-3.0)	1,269 (-2.7)	433 (3.2)	415 (1.0)	410 (-3.6)

자료 : 한국은행,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협회. 주 : 수출입은 통관 기준임.

- (전망) 미국 등 선진국의 경기 회복과 대중 수출의 견조한 회복세 등의 영향으로 2014년 수출은 8% 중반의 성장을 기록할 전망
 - 2014년 미국의 경기 회복세, 유로존 경기 부진 탈피 및 중국의 대선진국 수출의 견조한 성장으로 수출입 증가율은 완만한 성장이 예상
 - 대미 수출 및 대유럽 수출 회복, 중국을 통한 중간재 수출이 확대되면서 수출은 상반기 7.5%, 하반기 9.3%로 연간 8.4%의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
 - 2014년 무역수지와 경상수지는 각각 399억 달러, 490억 달러로 흑자는 지속되나, 수입 증가로 흑자폭은 2013년 대비 축소될 전망

< 경상수지 및 무역 수지 전망 >

(단위 : 억 달러, %)

구분	2011	2012	2013			2014(E)		
			상반	하반(E)	연간(E)	상반	하반	연간
경상수지	261	431	298	322	620	215	275	490
무역수지	308	283	200	269	468	171	228	399
수출 (증감률)	5,552 (19.0)	5,479 (-1.3)	2,765 (-0.6)	2,883 (5.6)	5,648 (3.1)	2,973 (7.5)	3,150 (9.3)	6,123 (8.4)
수입 (증감률)	5,244 (23.3)	5,196 (-0.9)	2,566 (-2.9)	2,614 (2.3)	5,180 (-0.3)	2,802 (9.2)	2,922 (11.8)	5,724 (10.5)

자료 : 한국은행, 무역협회.

주 : 1) 수출입은 통관 기준임. 2) 2013년 하반기부터는 현대경제연구원 전망치임.

6. 물가 : 물가 상승 압력 확대

○ (현황) 소비자물가와 근원물가는 2013년에 지속적으로 하향 안정

- 국내 물가는 2012년부터 상승세가 둔화되어 최근까지 비교적 안정되어 있음
- 소비자물가는 2012년 10월부터 2013년 9월까지 평균이 1% 초반대에 머무는 등 한국은행의 인플레이션 목표치인 2.5~3.5%를 크게 하회
- 근원물가 역시 2012년 2월부터 2013년 9월까지 1%대의 낮은 수준을 유지

< 주요 물가 지표 상승률 추이 >

(단위 : 전년동기대비, %)

구 분	2011	2012					2013			
		1/4	2/4	3/4	4/4	연간	1/4	2/4	8월	9월
소비자물가	4.0	3.0	2.4	1.6	1.7	2.2	1.4	1.1	1.3	0.8
근원	3.2	2.5	1.6	1.4	1.3	1.6	1.4	1.5	1.3	1.6
생활	4.4	2.7	2.0	1.0	1.1	1.6	0.8	0.4	0.8	-0.1

자료 : 한국은행.

○ (전망) 2014년 소비자물가는 2013년 보다 물가 상승률이 높을것으로 예상

- 2014년에는 경기 회복으로 인한 수요측 물가 상승압력과 명목 임금 인상 등 공급측 요인으로 올해보다 물가 상승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
- 경기 회복세로 GDP갭률이 내년에 플러스로 전환되는 등 수요측 물가 상승 압력이 점차 커지고 무상 보육으로 인한 물가 하락 효과가 사라짐
- 3%에 육박하는 높은 기대인플레이션율, 명목임금 인상³⁾, 전월세 가격의 상승세 등 물가 상승 압력이 높음
- 다만 국제 원자재 가격 하향 안정화, 원화 강세 등은 물가 상승폭을 제약하는 요인
- 달러화 강세, 생산량 증가와 재고 누적, 중국의 수요 감소 등으로 인한 국제 원자재 가격이 하향 안정화
- 경상수지 흑자 기조, 외국인 투자 자금 유입 등으로 원화 가치가 절상되어 수입 물가를 낮출 것으로 보임
- 이에 따라, 2014년 국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13년 보다 높은 2.4% 전망

< 소비자물가 추이 및 전망 >

(단위 : 전년동기대비, %)

구분	2011	2012	2013			2014(E)		
			상반	하반(E)	연간(E)	상반	하반	연간
소비자물가	4.0	2.2	1.4	1.5	1.4	2.2	2.6	2.4

자료 : 한국은행. 주 : 2013년 하반기부터는 현대경제연구원 전망치임.

3) 2014년 최저임금은 2013년 보다 7.2% 오른 5,210원.

7. 고용 : 고용친화적 제도에 따른 회복세 진전

○ (현황) 2013년 고용은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신규취업자 증가

- 실업률은 2012년 1/4분기, 2/4분기 각각 3.8%, 3.3%에서 2013년 1/4분기, 2/4분기 각각 3.6%, 3.1%로 크게 하락하였고, 7월과 8월에도 각각 3.1%, 3.0%를 기록하며 호조세를 이어가고 있음
- 2013년 신규취업자수는 1/4분기 25.7만명, 2/4분기 32.4만명을 기록하고, 7월과 8월에도 각각 36.7만명, 43.2만명을 기록하며 고용 회복세를 나타냄
- 새정부가 출범하면서 일자리 창출을 국정운영기조의 중심에 두고, 창업활성화 및 맞춤형 일자리 대책들을 마련해 옴
- 창조경제를 강조하고, 창업환경 개선 등을 통해 신규일자리 창출
- 정부가 여성, 청년 등 고용취약계층 중심의 맞춤형 일자리대책들을 지속적으로 마련함에 따라 고용여건 개선

< 고용 관련 지표 추이 >

(단위 : 전년동기대비, 천명, %)

구 분	2011	2012					2013			
		1/4	2/4	3/4	4/4	연간	1/4	2/4	7월	8월
취업자증가수	415	467	430	506	342	437	257	324	367	432
실업률	3.4	3.8	3.3	3.0	2.8	3.2	3.6	3.1	3.1	3.0
청년층	7.6	8.2	8.1	6.8	7.0	7.5	8.4	7.9	8.3	7.6

자료 : 통계청.

○ (전망) 2014년 기업투자 및 민간 건설경기가 회복되고,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정책에 두는 국정기조가 유지되면서 실업률이 소폭 하락할 전망

- 대내외 경기 회복에 따른 고용 확대 : 대내외 경기 회복에 따른 국내 기업의 투자 증대 및 민간부문 건설경기 회복 등으로 신규일자리가 확대될 전망
- 정부의 일자리 창출 노력 확대 : 창업 활성화 및 중소기업 육성을 통한 신규 취업자 증대와 유연근무제 및 양질의 시간제 일자 등의 노동시장 개선을 통한 일자리 창출로 정부의 신규일자리 목표치 달성을 위해 노력을 지속할 것임

< 실업률 추이 및 전망 >

(단위 : %)

	2011	2012	2013			2014(E)		
			상반	하반(E)	연간(E)	상반	하반	연간
실업률	3.4	3.2	3.4	3.2	3.3	3.2	3.0	3.1

자료 : 통계청.

주 : 2013년 하반기부터는 현대경제연구원 전망치임.

8. 원화 환율 : 원화 가치 소폭 절상

○ (현황) 원화 가치는 대내외 불안요인 확대로 변동성이 확대

- 원/달러 : 2013년 초에 키프러스, 이탈리아 등 정국불안, 대북 리스크 확대 등으로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은 절하 되었으나, 6월 이후 외국인 자금이 신흥국에서 국내로 유입되며 원/달러 환율은 최근 1,070원대까지 절상
- 원/엔 : 아베 정부의 경기회복을 위한 양적·질적 완화정책 시행으로 엔화의 가치가 평가 절하되며 원/엔 환율은 9월에 1,100원을 하회

< 원/달러 및 원/100엔 환율 현황 >

(단위: 원)

	2011	2012					2013			
		1/4	2/4	3/4	4/4	연간	1/4	2/4	8월	9월
원/달러	1,108	1,131	1,152	1,133	1,090	1,127	1,085	1,123	1,116	1,085
원/100엔	1,391	1,428	1,437	1,441	1,346	1,413	1,176	1,137	1,142	1,095

자료 : 한국은행.

주 : 평균 환율 기준.

○ (전망) 2014년에 원화 가치는 절상 되겠지만 절상폭은 제한적

- 경상수지 흑자 기초, 외국인 투자자금 유입, 양호한 국내 경제 펀더멘탈,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원화 가치 등으로 원화는 2013년 대비 절상 될 것으로 보임
- 하지만 엔화 약세 지속, 미국 출구전략 시행으로 인한 달러화 강세, 외환당국의 개입 경계심리 등은 원화 가치 상승의 제약 요인
- 이에 따라, 2014년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은 2013년 보다 절상된 1,070원 전망

< 환율 전망 추이 >

(단위: 원)

	2011	2012	2013			2014(E)		
			상반	하반(E)	연간(E)	상반	하반	연간
원/달러	1,112	1,127	1,101	1,095	1,098	1,080	1,060	1,070

자료 : 한국은행.

주 : 2013년 하반기부터는 현대경제연구원 전망치임.

< 2014년 주요 경제 지표 전망 >

구 분		2012	2013			2014(E)		
			상반기	하반기 (E)	연간(E)	상반기	하반기	연간
국민계정	경제성장률(%)	2.0	1.9	3.3	2.6	3.9	3.6	3.8
	민간소비(%)	1.7	1.6	2.3	2.0	2.8	2.6	2.7
	건설투자(%)	-2.2	5.2	2.5	3.7	1.7	3.3	2.5
	설비투자(%)	-1.9	-8.2	5.8	-1.5	9.8	3.9	6.7
대외거래	경상수지 (억 달러)	431	298	322	620	215	275	490
	무역수지 (억 달러)	283	200	268	468	171	228	399
	수 출 (억 달러)	5,479	2,765	2,883	5,648	2,973	3,150	6,123
	(증가율, %)	-1.3	0.6	5.6	3.1	7.5	9.3	8.4
	수 입 (억 달러)	5,196	2,566	2,614	5,180	2,802	2,922	5,724
	(증가율, %)	-0.9	-2.9	2.3	-0.3	9.2	11.8	10.5
소비자물가(평균, %)		2.2	1.4	1.5	1.4	2.2	2.6	2.4
실업률(평균, %)		3.2	3.4	3.2	3.3	3.2	3.0	3.1
원/달러 환율(평균, 원)		1,127	1,101	1,095	1,098	1,080	1,060	1,070

IV. 정책 과제

- 2014년 국내 경제는 3%대 후반의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이나, 잠재성장률의 하락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
 - 이에 더하여 대내외적으로 잠복해 있는 교란 요인이 현실화될 가능성도 상존. 이에 따라
 - 첫째,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한 종합적 대책 마련이 필요
 - 인구 측면에서는 고령화 및 정년퇴직, 여성인력 활용 미흡, 청년실업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 필요
 - 중산층 복원을 위한 세제·재정·양질의 일자리 측면에서의 다양한 정책 제안 필요
 - 창조 경제 및 신성장동력 확보 차원에서 ICT 융합 촉진, 제조업 유턴 유인, R&D 확대 등 필요
 - 경제 민주화의 속도조절 및 행정 규제 완화 등을 통한 기업가 정신 제고
 - 둘째, 소비 여력 회복을 위한 대책 필요
 - 가계부채 연착륙, 부동산 경기 활성화,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중산층의 소비여력 제고 정책 필요
 - 셋째,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 배가
 - 설비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규제 개혁, 경제민주화 속도 조절, 노사정 대타협, 수도권 투자 걸림돌 제거, 투자 관련 세제 지원 확대 등 필요
 - 건설투자 확대를 위해서는 8.28 대책에서 제시된 주택시장 정상화, 임대주택 공급 확대, 서민·중산층 주거비 부담 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
 - 또한 SOC 투자 확대(정부예산이 부족할 경우 민간 BTO, BTL 방식 활용)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
 - 넷째, 재정건전성 제고 방안 추진

- 과도한 복지가 재정건전성 훼손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할 필요. 복지 확대는 불가피한 것이나 꼭 필요한 분야와 대상으로 복지를 확대해야 할 것임
 - 증가하는 복지 수요에 대해 증세, 지하경제 양성화로 대응
- 다섯째, 대외 교란 요인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 미국 양적완화 축소, 일본 아베노믹스 실패 우려, 중국 경착륙 등 글로벌 시장 급랭에 대비
 - 금융시장 불안을 차단하기 위해 거시건전성 규제 및 국제 자본의 유출입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
 - 환율 및 금리의 급격한 변동에 대응한 체제 구축. 수출 신시장 개척 및 FTA 활용도 제고 등을 통한 대외 리스크 최소화
 - 한편, 해외 시장 여건 악화에 대비하여 지식기반 서비스업의 육성 등을 통해 내수기반을 강화

임희정 연구위원 (2072-6218, limhj9@hri.co.kr)
홍준표 연구위원 (2072-6214, jphong@hri.co.kr)
최성근 선임연구원 (2072-6223, csk01@hri.co.kr)
김광석 선임연구원 (2072-6215, gskim@hri.co.kr)
김천구 선임연구원 (2072-6211, ck1009@hri.co.kr)

주요 국내외 경제지표

□ 주요국 성장률 추이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연간	1/4	2/4	3/4	4/4	연간(E)	1/4	2/4
미국	1.8	2.8	3.7	1.2	2.8	0.1	1.7	1.1	2.5
유로 지역	1.4	-0.6	-0.1	-0.2	-0.1	-0.6	-0.6	-0.3	0.3
일본	-0.6	1.9	4.8	-0.9	-3.6	1.0	2.0	4.1	3.8
중국	9.3	7.8	8.1	7.6	7.4	7.9	7.8	7.7	7.5

주 1) 2013년 연간 전망치는 IMF 2013년 7월 기준이고, 한국은 현대경제연구원 전망치임
 2) 미국, 일본은 전기대비 연율, EU는 전기대비, 중국은 전년동기대비 기준임.

□ 국제 금융 지표

구분	2011년말	2012년		2013년			
		6월말	12월말	9월 27일	10월 3일	전주비	
해외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	1.88	1.65	1.70	2.63	2.61	-0.02%p
	엔/달러	77.66	79.37	85.86	98.98	98.06	-0.92¥
	달러/유로	1.2955	1.2437	1.3222	1.3487	1.3522	0.0035\$
	다우존스지수(p)	12,218	12,880	12,938	15,258	14,996	-262p
	닛케이지수(p)	8,455	9,007	10,395	14,760	14,157	-603p
국내	국고채 3년물 금리(%)	3.34	3.30	2.82	2.83	2.82	-0.01%
	원/달러(원)	1,151.8	1,145.4	1,070.6	1,073.7	1,074.0	0.3원
	코스피지수(p)	1,825.7	1,854.0	1,997.1	2,011.8	1,999.5	-12.3p

□ 해외 원자재 가격 지표

구분	2011년말	2012년		2013년			
		6월말	12월말	9월 27일	10월 3일	전주비	
국제 유가	WTI	99.22	84.86	90.89	105.11	104.85	-0.26\$
	Dubai	104.89	92.89	107.99	108.92	109.18	0.26\$
CRB선물지수	305.30	284.19	294.78	286.98	285.55	-1.43p	

1) CRB지수는 CRB(Commodity Research Bureau)사가 곡물, 원유, 산업용원자재, 귀금속 등의 주요 21개 주요 상품선물 가격에 동일한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하는 지수로 원자재 가격의 국제기준으로 간주됨.

□ 국내 주요 경제지표 추이

구 분	2011	2012			2013			2014(E)	
		상반기	하반기	연간	상반기	하반기(E)	연간(E)		
국민계정	경제성장률 (%)	3.7	2.6	1.5	2.0	1.9	3.3	2.6	3.8
	민간소비 (%)	2.4	1.2	2.2	1.7	1.6	2.3	2.0	2.7
	건설투자 (%)	-4.7	-1.9	-2.4	-2.2	5.2	2.5	3.7	2.5
	설비투자 (%)	3.6	2.3	-6.1	-1.9	-8.2	5.8	-1.5	6.7
대외거래	경상수지 (억 달러)	265	137	294	431	298	322	620	490
	무역수지 (억 달러)	308	109	174	283	200	268	468	399
	수출 (억 달러)	5,552	2,750	2,729	5,479	2,765	2,883	5,648	6,123
	(증가율, %)	19.0	0.5	-3.1	-1.3	0.6	5.6	3.1	8.4
	수입 (억 달러)	5,244	2,641	2,555	5,196	2,566	2,614	5,180	5,724
	(증가율, %)	23.3	2.3	-4.0	-0.9	-2.9	2.3	-0.3	10.5
소비자물가 (평균, %)	4.0	2.7	1.6	2.2	1.4	1.5	1.4	2.4	
실업률 (평균, %)	3.4	3.5	2.9	3.2	3.4	3.2	3.3	3.1	
원/달러 환율 (평균, 원)	1,108	1,142	1,112	1,127	1,101	1,095	1,098	1,070	

주 : E(Expectation)는 전망치